

9. 신학적 전회 시대의 들뢰즈

『현대철학의 종교적 회귀』(신명아,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왜 지금 들뢰즈인가?

들뢰즈는 인위적이고 망상적인 사고-이미지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이는 요소의 흐름에 가치를 두는 삶의 내재적 철학을 내놓았다. 들뢰즈는 망상적 사고-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문제(개념)를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들뢰즈적 문제는 고착된 대답이나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의성(univocity)과 관련된 다수의 요소를 발견해 그것 간의 관계를 위해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들뢰즈의 내재성의 철학을 검토하여 신학 자체의 시각을 확장 시킬 수 있을지 살펴본다.

오늘날 철학에서의 신학적 전회

기독교는 들뢰즈 이론으로 한층 더 풍요로워져 인간중심주의적, 위계질서적 그리고 초월적 속성을 피하기 위해 자체의 틀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것은 세계의 다수적 특이성의 요소를 차이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신의 영원한 회귀로 간주함으로써 가능하다. 들뢰즈의 차이 속에서 신의 회귀는 억압되거나 무시되지 않으며, 내재성의 평면을 구성한다.

잘 알려진 대로 들뢰즈는 철학, 예술, 과학과 상반되는 종교에 대한 공격에서 무신론적 입장을 드러낸다. 그러나 들뢰즈는 내재성의 철학 덕분에 종교를 위해 가능한 탈주선을 구축하는 데 유용하다.

들뢰즈와 내재성의 신학

들뢰즈의 내재성의 평면, 다수성, 기관없는 몸 등의 개념은 신학과 조화를 이룬다. 들뢰즈는 무한성의 타자를 '얼굴'로 표현한 레비나스와 반대로 기존 사회가 규정하는 속성, 정체성을 '얼굴'로 표현했다. "이 얼굴은 이 체제의 산물이지만 사회적 산물이다." 그는 사람들이 이런 얼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신의 특정한 재현을 금지한 중세시대에 신 개념이 화가로 하여금 선과 색깔을 재현으로부터 해방시켜 신에 대한 자기만의 그림을 창조하게 되었던 것처럼, 둔스 스코투스과 스피노자는 자기만의 신을 생각해내 존재의 일의성, "원인의 일의성과 양태의 일의성"에 대한 강령을 창출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존재의 일의성으로 인해 다수가 동등하게 각자의 고유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매개와 재현이 없는 들뢰즈의 내재성의 신학은 바로 13세기 철학자 둔스 스코투스과 스피노자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들뢰즈의 '기독교 신학 전통의 비정통적 사용'은 어떤 것도 폐제되도록 허락하지 않고, 모든 것이 요소의 새로운 형태를 생성하도록 열려있기를 바라는 그의 내재성의 신학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들뢰즈의 내재성은 다수성으로 구성되며 이 내재성의 평면은 과정 속에서, 흐름 속에서 작동한다. 들뢰즈에게 차이는 영원회귀와 잉여 속의 차이이며, 그 자체와 동일시되지 않고 항상 모사물인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초월한다. 그는 모든 것이 원본이 아니라 모사임을 주장하며, 동일성, 유사성, 그리고 비유와 부정성을 거부한다. 모든 것은 실체를 공유하는 모사이며, 양태만 다를 뿐이다. 그것이 실체와 양태에 대한 스피노자의 이해이다. 들뢰즈는 “일의적인 것이 순수한 긍정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실체가 양태 주의를 돌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원회귀 속에서의 반복 형태로 일의성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잉여로서의 이 차이가 되기(생성) 과정을 보장해 준다.

인간의 삶은, 키르케로고르가 주목하듯이, 되기(생성), 변화 과정 속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우리의 실재성은 신과의 관계에서 능동적 관계, 관심성, 중간의 존재, ‘사이-존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런 기독교적 시각에서 볼 때 진정 인간적인 것은 (개체를) 초월한, 비인간-되기(생성)이다. 인간 밑에 계신 신(God as beneath the human)에 대한 욕망(결여로서의 욕망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차고 생산적이며 원천적인 욕망)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표현할 수 없는 친밀성’이다.

되기(생성) 과정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인간 밑에 계신 신에 대한 욕망’에 대한 심슨의 해석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표현할 수 없는 친밀성’을 강조한다.

스피노자와 들뢰즈

들뢰즈의 내재성 신학은 ‘모든 이에게 말하는 가장 순수한 철학자’로 간주하는 스피노자에 크게 힘입고 있다. 들뢰즈는 스피노자를 니체 눈으로 읽는다. 그는 영원회귀 시험을 거치는 양상만을 탐구한다. ‘실체는’ 힘없는 물질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 생산과 감수성의 힘이 된다. 스피노자 윤리학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를 초월적 가치로 언급하는 도덕성을 대체하는, 존재의 내재적 양태의 위상학이다.” 들뢰즈는 우주의 요소가 주체 또는 자아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내적 활력(conatus)을 가진다고 본다. 들뢰즈의 이론은, “과정의 다수성은 모든 것이 일어나는 진정한 요소가 되는 구체적 ‘다수성’”에 입각해 있다.

들뢰즈는 ‘신의 전체적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대지-탈영토화된, 빙하적, 거대 분자-는 기관 없는 몸이다. 이 기관 없는 몸은 형성되지 않은, 불안정한 물질에 의해, 자유로운 집중 또는 유목적 특이성에 의해, 열광적인 또는 순간적인 분자에 의해 관통된다. ... 왜냐하면 동시에 대지 위에 많은 면에서 혜택을 주고, 많은 다른 면에서 운이 좋지 않은, 매우 중요하고 불가피한 현상, 층위화가 일어난다. 층위는 층, 지대이다. 그것이 물질에 형태를 부여한다. ...층위는 신의 판단이다.

층위는 ‘신의 판단’이지만 신은 한 목적만 가진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 층위의 표층은 이중분절에 의존한다. 층위의 표층은 두 방향을 가진 기계적 배치로, 하나는 층위를, 다른 하나는 기관 없는 몸을

향해 있다. 각 층위는 이중분절을 구성하는 현상을 드러낸다. 이중분절의 처음 분절은 불안정한 분자-흐름, 준안정적인 분자적 또는 준-분자적 단위(실체)로부터 선택하거나 추출한다, 두 번째 분절은 기능적이고 압축적이며 안정적 구조(형태)를 구축하고 그런 구조가 동시에 (실체로) 실제화되는 그램분자적 복합물들로 구성한다.

들뢰즈는 층위를 ‘신의 판단’, 즉 ‘신학체계’로 이야기하지만 이 체계는 ‘기관을 만드는 신의 기능’이다. 그러나 ‘이중구속’ 또는 ‘이중분절’로서의 신은 모든 요소를 항상 언제나 자유로운 흐름 속에 둔다. “이중분절 간의 구분은 실체와 형태의 차이가 아니다. 형성된 물질로서의 실체는 영토성,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정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층위를 가로지르며 그것을 해체하는, 기관 없는 몸을 자유롭게 하는 일체성의 평면 그리고 그것을 막거나 그것이 움츠러들게 하는 층위화의 표면 간의 영원하고 격렬한 투쟁이 존재한다.” 들뢰즈는 “모든 고착된 정체성과 고양된 초월적인 것을 대지로 다시 끌어내려 사막을 횡단하도록 만든다.”

들뢰즈와 지적

지적은 기관 없는 몸이라는 단어를 ‘신체(몸) 없는 기관’이라고 역으로 만듦으로써 왜곡하였다. 그는 구조적으로 스피노자와 들뢰즈를 ‘유대주의’와 반대되는 ‘이교도주의’에 위치시키고 그들을 그가 선호하는 헤겔이나 기독교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되기(생성)의 흐름은 그림자의 불임적 무대가 물질적 생산의 장으로부터 존재론적으로 고립시킨, 월등한, 상부구조가 아닐까? 그런 것으로서 사건의 유일하게 가능한 공간이지 않을까?”라며 들뢰즈의 되기(생성)이라는 핵심적 개념조차도 뒤집어 버린다.

오이디푸스적이건 이데올로기적이건 인간의 환상을 넘어서려는 들뢰즈의 스피노자적 특징은 그로 하여금 내재성의 평면을 찾게 하고, 의식, 가치, 본능 등을 버리게 한다. 들뢰즈는 내재성의 평면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키르케고르를 따라 신앙적 ‘믿음’과 연결시킨다. 내재성의 평면에서의 움직임은 긍정적이고 믿음이며, 어떤 체념도 모른다. 들뢰즈가 믿음과 키르케고르를 ‘무한성의 평면’과 연결하는 것은 ‘내재성의 평면’의 신학적 양상을 인식함을 보여준다. ‘내재성의 평면’은 의식의 눈으로 지각될 수 없는, 삶의 자유로운 흐름을 포함하며,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을 필요로 한다. 내재성의 평면과 연결되는 이 ‘믿음’에 대한 견해는 신학을 향한 한층 더 진전된 이해이다. 영원회귀에서 반복되는 것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며, 차이 속에서 반복되는 것은 미래이다. 동일한 것은 반복되지 않는다. 반복되는 것은 항상 차이이다.

차이 속의 영원회귀라는, 지나치게 철학적인 개념을 극복한 이후 들뢰즈의 내재성의 철학은, “구원과 영혼성에 대한 들뢰즈적 재개념화로 신학적 물질주의로서의 급진적 신학으로 ‘세상, 이 세계에 대한 우리 믿음을 복원해주도록’ 봉사하는 물질주의적인 것과 영혼적인 것에 대한 비-이분법적인 이해”의 방향으로 전환된다.

들뢰즈의 내재성의 평면과 유층적 주체

내재성의 평면은 본질과 필연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내재성의 평면은 “움직임과 정지의, 속도감과

느림의, 형성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요소, 흐름이 실어나르는 분자 또는 입자 간의 관계만 안다.” 유충적 주체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주체이다. 유충적 주체는 주체의 속성이 없으며, 특개성(haecceities, 개성 원리, 개별성의 특성)의 속성으로 표출된다. 들뢰즈 철학에서 특개성은 주체성을 대체한다. 들뢰즈는 특개성을 영원한 시간, 아이온과 연결한다. “이것은 동일한 종류의 시간이 아니다. 흐르는 시간, 아이온의 흐르는 선은 크로노스와 구분된다. 특개성은 단순히 능동적 또는 수동적 정동과 집중성을 ... 결합하는 힘의 정도이다.”

특개성과 그것의 시간, 아이온은 존재하는 무엇이든 고착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흐름 속에 있으며, 사건을 통해 메시아적 시간을 실현시키려 한다. 이 일관성의 평면 또는 내재성의 평면에서 어떤 특정한 것도 기념비적으로 되거나 영원화되지 않는다. 이 삶의 평면에서 모든 삶의 요소는 조화를 이루며, 아이온 시간 속에서 되기(생성) 과정을 위해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들뢰즈는 자본주의 사회가 주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주목했다. 들뢰즈 철학에서 주체의 변화는 욕망 개념으로부터 나온다. 들뢰즈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정신분열증을 생산한다.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 특정한 형태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 욕망은 “그것이 대상을 향해서 편향되는 것도 주체 내부에 있지도 않다. 그것은 미리-존재하지 않는 한 평면에, 입자가 분출되고 흐름들이 결합되는, 구조화되어야만 하는 평면에 엄격하게 내재되어 있던 것이다.” 이 들뢰즈적 욕망은 새로운 시간 개념, 아이온의 시간 위에서 작동한다.

티난(Aidan Tynan)은 들뢰즈의 “분열분석을 정치신학”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아이온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티난에 따르면 세 종류의 시간이 있다. “크로노스로서의 단순한 연대기-지나가는 시간 또는 기다리는 (미래의) 시간, ... 카이로스, 과도기적 전환점으로서의 시간, ... 그리스인들이 아이온이라고 부르는 시간”이다. “크로노스는 언제나 명확하고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이다. 아이온은 영원히 무한대적이며 영원히 중립적이다. 크로노스가 회전적이며 신체의 움직임을 재고 그것을 제한하거나 채우는 물질에 의존한다면, 아이온은 표면에서 순수히 곧은 선으로서 비물질적이고 제한이 없으며, 공허한 시간 형태로 모든 물질에 독립적이다.”

홀워드(peter Hallward)도 아이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아이온 시간은 잠재적이고, 나눌 수 없는 그래서 재현-불가능한 시간이다. 비-실제적이고, 항상 이미 지나갔고 영원히 도래할, 아이온 시간은 시간의 영원한 진실이다. 자기로부터 현재의 신체적 내용을 제거해 해방시킨 순수한 공허한 형태의 시간이다. 아이온 시간은 ‘사건의 비절정적 시간’, 비신체적 사건의 장소이다.

수린(Kenneth Surin)은 들뢰즈의 주체성, 특개성, 유충적 주체, 일관성의 평면 개념을 혁명 정치학과 연결시킨다. 수린에 따르면, “(들뢰즈의 철학은) 새로운 다중성의 되기(생성)을 위한 초월적 장소로서 기능하며, 각각의 새로운 다중성은 잠재적으로 예전의 주권자가 예견하지 못한, 해방을 위해 사는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행위자 또는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무용지물로 여겨진) 자격 없는 내재성의 존재론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수린이 내재성의 철학을 통한 기독교의 가능한 변화를 제시했듯이, 애드킨스(Brent Adkins)는 “들

뢰즈와 가타리는 종교 연구의 역사에서의 지배적 경향에 반대해 ... 종교는 질서의 원천이 아니라 둘이 '영토화'라고 부르는 체계화하기(ordering) 과정임을 명확히 한다." 들뢰즈는 종교에 대해 내재성의 철학을 통해 탈주선을 제공한다. 들뢰즈의 철학은 신학적 목적으로 그것들을 통제하는 어떤 초월적 존재 없이 영토화하면서 동시에 탈영토화하면서 흐르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온의 시간에 열려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의 철학은 "그 자체가 원초적인 생산과정의 산물, 결과," 즉 "피조물적인 것"이라기보다 생성과 창조이다. "이미 존재하는 기준(더 높은 가치들)을 전제하는 것은 판단"이다. "판단은 새로운 유형의 존재가 출현하는 것을 막는다. 왜냐하면 후자는 자기만의 힘으로, 즉 자기가 모을 수 있는 힘을 통해 자기를 만들고, 그것이 새로운 결합을 탄생시키면서 판단하지 않는 한 그 자체 그 스스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니체가 복음의 '크게 갈라진 모순(gaping contradictions)'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이런 텍스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해 짐작하게 허락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그가 가져온 '기쁜 소식', 죄라는 개념을 억누르기, 모든 분노(resentment) 그리고 모든 종류의 복수의 정신을 없애기, 그에 따른 모든 전쟁의 거부, 땅 위에서의 신의 왕국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가르침의 증거로서 죽음을 수용하기 등이다. 니체가 말하려는 바를 파악하기는 쉽다: 그리스도는 바울이 그에 대해 파악한 바와 정반대이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일종의 부처, 인도에 있는 분과는 닮지 않은 땅 위의 부처였다.

들뢰즈에게 각인된 그리스도의 양상은 자기의 자아에 집착한 주체가 아니라 자기를 초월한 타자에게 열려 있는 인간의 모습, 현대의 자기에 집착하지 않는 '유충적' 주체와 일치한다. 이런 주체는 항상 타자의 부름에 반응하고 자연과 이웃과 미래의 시간, 영원한 아이온의 시간 속에서 모두를 아우르는 생명과 사랑의 주체임을 현대철학의 종교적 전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